

헨켈, 6월7일 자선바자회 개최

독일계 생활산업용품 생산기업 헨켈(대표 파루크 아리그)은 6월8일 아름다운가게(상임이사 김선우)와 함께 자선바자회를 개최한다.

헨켈의 사회공헌 캠페인 헨켈 스마일(Henkel-Smile)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바자회에는 다양한 헨켈 생산제품과 직원들의 기증품을 모아 판매하고 수익금은 시각장애 아동과 저소득층 아동들의 교육활동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135년 전통 글로벌 생활·산업 용품 기업



아름다운 하루,
헨켈과 함께하세요

2011년 6월 8일 수요일 오전 10:30~오후 8:00



행사는 서울 안국점을 비롯해 안산, 청주, 천안, 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의 매장에서 동시 진행된다.

해당 매장에서는 헨켈 생산제품과 직원들이 기증한 총 1만7700점의 물품이 50%에서 최대 70%까지 특별 할인된 가격에 판매된다.

헨켈 생산제품은 홈키퍼, 마이키퍼, 홈매트 등 모기퇴치제, 가정용 살충제인 컴배트, 세제 퍼실, 프리, 버넬과 프리 수정펜, 투명테이프, 고체풀, 페인트볼 세트, 그리고 록타이트 순간 접착제, 가솔린 연료첨가제 등 다양하게 구성돼 있다.

헨켈은 1876년 설립돼 홈키퍼, 퍼실(Persil), 록타이트(Loctite) 브랜드와 함께 소비재와 산업용품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마켓 리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매출 150억9200만유로, 영업이익 18억6200만유로를 달성했다.

헨켈은 1989년 국내시장에 진출했으며 현재 약 6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고, 산업용품을 보유한 헨켈 테크놀러지스 코리아와 생활용품을 생산 판매하는 헨켈 홈케어 코리아 2개 법인이 활동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1/06/02>